

담당자	세화미술관 석지훈 사원(010-9905-4059) 대외협력실 김정훈 부장(010-5411-6277)	배포일	2023.03. 07(화)
-----	--	-----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정물도시》展 개최

- 세화미술관 도시 기획전... 국내 외 19명 작가의 작품 44점 6월 30일까지 전시
- 도시 속 시대를 반영하는 '정물화(Still-Life)'의 현대적 재해석
- 전시 도슨트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풍부한 감상을 위한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

태광그룹 세화미술관(관장 서혜옥)은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흥국생명이 후원하는 세화미술관 도시 기획전 《정물도시(Still-Life, Still-City)》를 개최한다.

도심 속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는 세화미술관은, 도시를 테마로 하는 정기 기획전을 개최해왔으며 이번 전시는 '도시의 정물'을 주제로 한 도시 기획전이다. 과거 개최한 도시 기획전은 도시 산책자 '플라뇌르(Flaneur)'의 시점, 대도시의 외현을 구성하는 빛과 색채의 탐구,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단단히 구축되어 있는 도시의 미시 세계를 신진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선보였다.

《정물도시》는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정물화(Still-Life)'의 정의를 재해석하여 오늘날 정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정물과 공존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이 전시는 움직임이 없는 사물을 그리는 정물화의 관습적 개념에서 벗어나, 대중문화, 자본주의, 소비사회, 대량생산, 사회구조 등 현대 미술 작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메타포(metaphor)로서의 정물 그리고 작가들에게 미친 도시의 영향력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물도시》는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데이비드 살레(David Salle, 미국), 알렉스 카츠(Alex Katz, 미국), 조나스 우드(Jonas Wood, 미국), 웨인 티보(Wayne Thiebaud, 미국), 장 뒤뷔페(Jean Dubuffet, 프랑스), 탐 웨셀만(Tom Wesselmann, 미국), 토마스 루프(Thomas Ruff, 독일)를 포함한 해외 작가와 김병호, 권용래, 이기봉, 정연두, 박미나 등 국내 외 19명 작가의 작품 44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위치한 세화미술관에서 유료로 진행되며,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 해설 도슨트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평일 정규 도슨트 프로그램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그리고 주말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이 오후 2시에 무료로 각각 진행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 기간 동안 총 8회 토요일

오전 11시에 유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네이버 온라인 예매 사이트와 홈페이지(www.sehwamuseum.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태광그룹은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세화예술문화재단을 설립, 일주&선화 갤러리를 운영하며 국내외 작가 지원 및 전시를 개최하였다. 2017년 세화미술관으로 확장 개관하여,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층에서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이고, 3층 미술관에서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끝>

<전시개요>

○ 전시정보

제목 : 세화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정물도시(Still-Life, Still-City)》

주최 :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www.sehwamuseum.org) / 후원 : 흥국생명

일정 : 2023.03.07(화) ~ 2023.06.30(금),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장소 : 세화미술관 제 1, 2 전시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3층)

입장료 : 성인(8,000원), 청소년(5,000원), 어린이(3,000원) / 단체 20인 이상 할인가 적용

도슨트 : 평일 정규 도슨트 | 오전 11시, 오후 2시

주말 특별 도슨트 | 오후 2시

교육 : 3.18, 3.25, 4.8, 4.15, 5.13, 5.20, 6.3, 6.10 / 오전 11시 교육 프로그램 /

성인(13,000원), 초등학생 4학년 이상(10,000원)

참여작가 : 데이비드 살레(미국), 알렉스 카츠(미국), 토니 크랙(영국), 로버트 롱고(미국), 웨인 티보(미국), 요하네스 하이저히(독일), 조나스 우드(미국), 탐 웨셀만(미국), 토마스 루프(독일), 짐 다인(미국), 권용래(한국), 김병호(한국), 정연두(한국), 프란츠 아커만(독일), 장 뒤뷔페(프랑스), 빅 무니즈(브라질), 박미나(한국), 발레리오 아다미(이탈리아), 이기봉(한국)

문의 : 02-2002-7787 / sma@sehwamuseum.org

붙임 1. 전시 전경 1부.

2. 전시 기획글 1부

3. 작가 소개 1부. 끝.



태광그룹 세화미술관은 2023년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물도시》 전시를 개최합니다. 세화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도시’를 주제로 한 네 번째 기획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기획전은 ‘서울’이라는 국한된 도시의 급진적 개발에 의한 발전과 쇠퇴를 바라보는 도시 산책자 ‘플라뇌르’의 시점, 대도시의 외연을 구성하는 빛과 색채의 탐구,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단단히 구축되어 있는 도시의 미시세계를 국내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물도시》는 현대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정물화(Still Life)’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정물과 공존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물을 그리는 정물화의 관습적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작가들의 정물화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자본주의, 소비사회, 대량생산, 사회구조 등 작가들이 살아간 그 시대를 반영하는 메타포로서의 정물 그리고 그들에게 미친 도시의 영향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멈춰 있는 정물 사이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담은 도시. 그 목시적 풍경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몬이 담긴 그릇 Bowl of Lemons>, 2020,
Oil, acrylic and charcoal on linen, 155.9 x
201.3 x 7 cm

데이비드 살레(미국, 1952~)

David Salle

데이비드 살레는 미국 오클라호마 출생으로 1980년대 회화의 부흥을 야기한 신표현주의를 이끈 주요 인물이자, 대중문화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여 작업하는 '픽처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살레는 상업적인 이미지나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저급문화 혹은 다양한 역사 자료에서 추출한 이미지를 혼용하여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한다. 하나의 캔버스 안에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는 방식은 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각기 다른 정물들을 동시에 인지하는 '본다'는 행위를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최근 작가는 미국의 만화가인 피터 아르노로부터 영감을 받아 인물을 굵은 선으로 단순화하는 표현과 함께 다채로운 이미지를 혼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유발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노란 창포꽃 Yellow Flags>, 2021, Oil on
linen, 101.6 x 127 cm

알렉스 카츠(미국, 1927~)

Alex Katz

알렉스 카츠는 뉴욕 출생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1954년 처음으로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화, 드로잉, 조각, 판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평평한 색면으로 인물, 꽃, 풍경 등을 단순화하여 미국의 일상적 풍경을 기록하는 상징적인 회화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거대한 캔버스에 두 인물의 얼굴을 배치하는 구성법이나, 매우 얇고 납작하게 처리한 바탕색, 평평한 판에 그린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잘라내는 컷아웃 기법, 그리고 주제의 비율을 조율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신만의 화풍을 견고하게 구축한다. 이처럼 절제된 색채와 화면 구성을 통해 작가는 인물과 사물의 본질만을 남겨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찰나를 담아낸다.



<달리는 사람 Runner>, 2014(2017년 재제작), Bronze, 150 x 106 x 64 cm

토니 크랙(영국, 1949~)

Tony Cragg

토니 크랙은 영국 리버풀 출생으로, 1977년부터 독일로 이주하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크랙은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관계, 재료의 물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조각 언어를 구축한다. 그에게 조각 매체란 재료와 형태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1960년대 후반에 유기화학 실험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는 물질세계의 근본을 이루는 유기체를 연구하는 과학적 사고와, 물질 이면의 가치를 탐구하는 예술적 사고를 접목하여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계속한다. 작품명처럼 속도감이 느껴지는 유려한 윤곽선을 지닌 <달리는 사람>은 현대 문명에 대한 작가의 오랜 탐구가 담겨있다.



<무제(할리 데이비드슨) Untitled (Harley Davidson)>, 2018, Charcoal on mounted paper, 152.4 x 304.8 cm

로버트 롱고(미국, 1953~)

Robert Longo

로버트 롱고는 미국 출신의 작가로 공연, 사진,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롱고는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같은 폭력 사태에 깊은 영향을 받아 목탄을 활용하여 집단 무의식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린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외양이 지닌 피상성을 넘어서, 이미지 내면에 존재하는 진실을 추적하고 의미의 층을 드러내는 탐구를 지속한다. 롱고의 극사실주의 목탄 드로잉은 흑백사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다가서면 목탄이 지나간 흔적과 축적된 밀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때로는 도시에 부재한 듯 간과되는 풍경을,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라 묵과하는 풍경을 압도적이고 거대한 스케일로 끌어와 그 속에 담긴 불멸의 아름다움을 찾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잭팟 머신 Jackpot Machine>, 1955, Oil, gold and silver leaf on board, 108 x 80 cm

웨인 티보(미국, 1920~2021)

Wayne Thiebaud

웨인 티보는 미국 출신으로 파이, 케이크 등과 같이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정물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디저트처럼 그동안 회화의 소재로 잘 다루지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시대만의 정물'을 그리고자 했다. 티보의 정물화는 회화의 한정된 주제를 확장시키고 매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회화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티보는 디저트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의 도로 풍경이나 잭팟 머신 같이 도시의 생활을 담아낸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이때 그는 대상을 직접 보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림을 그린다. 즉 작가가 작업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미국 도시의 일상이다. 잭팟 머신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고요하게 담아내는 <잭팟 머신>은 이 오락 기계가 내포하는 도시의 인간과 욕망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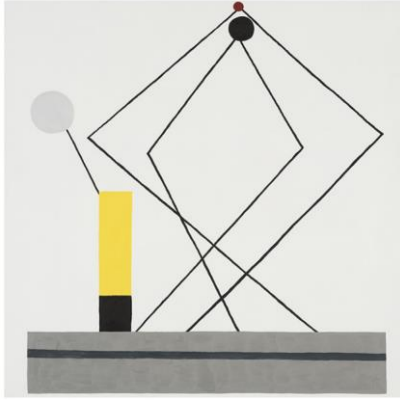


<꽃다발의 변형 V Variationen eines Blumenstraußes V>, 2015, Oil on canvas, 40 x 30 cm

요하네스 하이지히(독일, 1953~)

Johannes Heisig

요하네스 하이지히는 독일 라이프치히의 유명 예술가 집안 출신으로 화가인 아버지 베른하르트 하이지히와 할아버지 발터 하이지히 밑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회화를 배웠다. 하이지히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수집된 풍경과 인물은 인상주의적인 표현으로 재현된다. 작가는 초상, 풍경, 정물에서 더 나아가 혼란스러운 도시 생활의 목시적 표현이나, 독일 역사의 인상적 반성을 표현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색을 여러 번 덧칠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친숙한 이미지로부터 사실적인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이를 통해 이미지는 독특하게 변형된다. <꽃다발의 변형> 연작에서는 두텁게 반복하여 덧칠한 오일 페인트가 작품 제목처럼 화병 속 꽃다발의 형상에 왜곡과 변형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 역동적인 기계적 움직임과 그 속에 얽히고설킨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하이지히의 연작은 도시가 지닌 혼돈과 그 안에 담긴 탄생과 파괴의 힘을 보여주는 듯하다.



<무제(새로운 식물들) Untitled (New Plants)>, 2009, Oil on linen, 127 x 121.9 cm

조나스 우드(미국, 1977~)

Jonas Wood

조나스 우드는 미국 출생으로 대담한 색상과 그래픽적 요소를 가미한 일상의 풍경을 회화, 드로잉, 판화 등으로 제작한다. 특히 그는 자기 주변 대상인 가족, 친구, 집과 스튜디오 실내, 식물이 놓인 장식장 등 일상을 작품에 들여와 이를 일기처럼 써 나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식물이나 화분, 화병을 클로즈업한 작품이다. 이는 도예가인 그의 일본인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작가는 다양한 도자기와 식물들이 넘쳐나는 집안 곳곳을 탐험하며 이를 그림으로 재현한다. <무제(새로운 식물들)>에서 녹색의 식물은 부재하지만 간결한 선과 기하학적 도형, 단순한 색채를 통해 단순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식물과 꽃꽂이 화병을 관찰하여 드로잉하고 무수히 콜라주 했을 복잡다단한 과정과는 대비된다. 작품에서 엿보이는 대담한 색상과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은 사소한 일상에서 궁극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인간 심리를 반추하게 한다.



<침실 연작 #51 Bedroom Painting #51>, 1983, Oil on canvas, 101.6 x 16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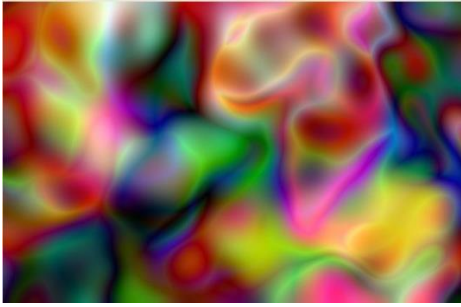
탐 웨셀만(미국, 1931~2004)

Tom Wesselmann

탐 웨셀만은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 출생의 작가이다. 1950년대 후반 미국 화단의 지배적인 화풍이었던 추상표현주의와 차별화되는 방법을 추구한 그는 1961년 열린 첫 개인전을 필드로 팝 아트를 주제로 한 단체전에 연이어 참여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로 이름을 알린다. 작가의 대표작인 <위대한 미국의 누드> 연작은 유럽 중심의 미술사적 전통과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미국 대중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미국식 여성 누드'를 보여준다. 웨셀만의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과 정물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답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동시에 도시 속 화려한 대중매체 이미지와 그 안에 도사린 물신주의를 표상하고 있다.

토마스 루프(독일, 1958~)

Thomas Ruff



<근원 26 II Substrat 26 II>, 2005,
Cibachrome print with diasec,
186 x 285cm

토마스 루프는 독일 출신의 사진작가로 사진이라는 매체의 경계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다. 사진 한 장으로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보았던 그는 대부분의 작업을 연작으로 제작한다. 또한 작가는 사진을 찍기 위한 전통적 장치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데, 기존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물의 표면만을 포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포착하고자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디지털로 편집해 사진을 제작한다. 사진 제작 방식에 대한 작가의 실험적인 시도는 누드나 풍경, 추상과 같은 익숙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현실의 외연을 포착하기보다는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루프가 선보이는 사진은 현대도시 속 존재하는 이미지들의 '실체 없음'을 떠올리게 하며, 삶의 피상적인 모습이 아닌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짐 다인 (미국, 1935~)

Jim D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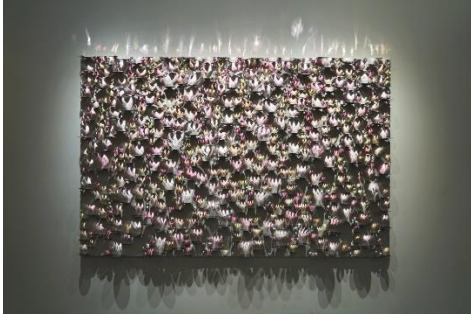


<로마의 붉은 비너스(푸른 녹청) Roman Red Venus (the Blue Patina)>, 2007, Bronze with acrylic paint, 157.5 x 50.8 x 45.7 cm

하트, 새, 도구, 목욕 가운, 피노키오 등의 주제를 아이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짐 다인은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 출생으로, 1960년대 초 액션 페인팅과 해프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예술가이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제스퍼 존스의 영향을 받아 일상의 사물들을 캔버스에 그리면서 팝 아트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개인적 오브제와 자전적 경험을 다룸으로써 작가 스스로 팝 아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1980년대 조각 작업을 시작하며 조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인은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조각 <밀로의 비너스>를 변형한 <로마의 붉은 비너스(푸른 녹청)>를 제작한다. 작가는 '비너스'라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인 이미지로 치환한다. 매끄러운 표면의 <밀로의 비너스>와는 달리 다인의 조각은 두상을 제거하고, 거친 표면과 생생한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현한다.

권용래(한국, 1964~)

Yong Rae Kwon



<영원의 불꽃 - 파르마 핑크 The Eternal Flame- Parma Pink>, 2019, Stainless steel on canvas, 145.4 x 227.3 x 17cm

권용래는 캔버스에 전통적인 물감과 붓 대신 스테인리스 금속판 조각과 빛의 파장을 활용한 조형 작품을 제작한다. 작가는 현대 사회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는 차가운 속성과 빛의 반짝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그가 매끈하게 거울로 가공한 스테인리스판의 유닛들은 조명과 만나며 공간 속 현란하게 일렁이는 환영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작품을 조각이 아닌 회화로 규명한 바 있다. <영원의 불꽃-파르마 핑크> 속 금속의 차가운 물성은 빛과 만나 뜨거운 분홍색 불꽃의 형상으로 나타나며, <빛 속의 깊은 노란색>은 노란색이 지닌 다층적인 음영의 깊이와 빛의 파장을 보여준다. 권용래의 작업은 복잡한 현대 도시에서 정적의 찰나와 같이 순간이 멈춘 듯한 황홀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병호(한국, 1974~)

Byoungho Kim



<수평적 개입 Horizontal Intervention>, 2010, Aluminum, arduino duemilanove, piezo, 280 x 96 x 25 cm

김병호는 금속 및 알루미늄을 주 매체로 동시대 산업화 과정을 투영하는 설치 작업을 제작한다. 조각에 소리를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 형식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작품을 '제품'에 비유하며, 산업 규범을 작품 제작에 기능적으로 도입하여 표면적인 결과물만 큼이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에 집중한다. 작가의 작품은 뉴 미디어와 결합한 독창적인 형식의 조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조각 범위를 확장하는 예술적 의의를 지닌다. <수평적 개입>은 작품 내부에 전자 부품들이 전자 기판에 집적화되어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를 통해 소리를 생성한다. 마치 산업 제품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가공되는 작품의 제작 단계는 오늘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도시 사회를 반영한다. 매끈한 알루미늄 소재로 일정한 간격과 규격으로 제작된 튜브들은 도시의 화려한 외면을, 알루미늄 조각 속에서 비물질적인 소리가 생성되는 구조는 도시 속 보이지 않는 욕망의 발현을 상징한다.



<여행/기다림, 과거를 다시 말하다 Travel/On Hold, Retelling the Past>, 2022, Installation
Video and 6 panels oil on canvas,
261 x 200 x 4.5 cm

프란츠 아커만(독일, 1963~)

Franz Ackermann

프란츠 아커만은 독일 출신의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그에게 여행은 작업의 원천적 행위이다. 그는 홍콩을 비롯해 아시아, 남미, 호주 등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받은 영감들을 추상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병합시키고 지역의 환경을 재해석한다. <여행/기다림, 과거를 다시 말하다>에서 여섯 개의 캔버스 위로 투사된 비디오와 사운드는 아커만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행하며 수집한 작가 개인의 아카이브로부터 구성되었다. 높은 채도의 색상과 기하학적 형태의 이미지 조각들, 그리고 스크리닝을 통한 도시의 현실적 이미지들은 오버랩 되어 여행지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것들은 세계화나 관광이 야기하는 여행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작업을 통해 관객은 각 지역에 대한 작가의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동시에 체험하고 작가 내면의 여정에 동참한다.



<내 사랑 지니 #1 Bewitched #1>, 2001, C-print, 120 x 150 cm (2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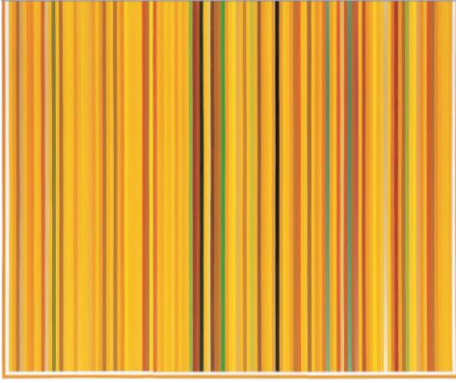
정연두(한국, 1969~)

Yeondoo Jung

정연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재와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인다. <내 사랑 지니> 연작은 작가의 대표작으로 인간 개개인이 지닌 삶의 의미에 주목한다. 연작의 첫 번째 작업인 <내 사랑 지니 #1>에는 한 남성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남성은 과거 폭주족이었지만, 사고를 겪은 뒤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멈췄다. 작가는 남성이 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레이서로 우승을 거둔 가상의 모습을 작업에 병치한다. 이로써 사진 속 주인공은 가상으로 실현된 꿈속의 모습을 통해 좌절과 두려움을 승화한다. 정연두의 작업은 도시의 세속적 삶 속에 묻힌 현대인의 꿈을 끄집어내어 인간 개개인이 잊고 있던 삶과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박미나(한국, 1973~)

MeeNa Park



<노란색 옷장 Yellow Wardrobe>, 2004,
Acrylic on canvas, 227 x 276 cm

박미나는 한국 출신의 작가로 색채의 형식과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왔다. <오렌지 페인팅> 연작은 작가에게 '집에 걸 수 있는 오렌지색 회화'의 구매를 요청한 한 미술 소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작품 화면 위로 사회에서 지칭하는 다양한 오렌지색이 펼쳐지면서 '오렌지'라는 색상 명칭이 지시하는 유일하고 단일한 색상은 흐려지고 다층적 의미가 드러난다. 또한 이 연작의 높이는 227cm로 모두 동일한데, 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의 천장 높이가 230cm라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작가가 수집한 색은 '색채'라는 개념 이면에 존재하는 산업구조를 보여주며, 캔버스의 크기는 한국의 주택산업을 가시화한다. 색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는 시각문화와 사회구조는 회화가 지닌 또 다른 가능성을 선보인다.

장 뒤뷔페(프랑스, 1901~1985)

Jean Dubuffet



<앉아있는 인물II Personnage assis II>, 1967,
Acrylic on polyster resin, 168 x 60 x 65 cm

장 뒤뷔페는 프랑스 출생의 작가로 기하학적 추상에 반발하여 일어난 앵포르멜 미술의 선구자이자 '아르 브뤼(Art Brut)' 개념의 창시자이다. 작가는 어린이나 정신병자와 같이 미술 교육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린 비전문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림이 전문 화가의 작업보다 창의적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그림을 아르 브뤼라고 명명했다. <앉아있는 인물 II>는 '우를루프(Hourloupe)'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우를루프 역시 뒤뷔페가 고안한 용어로, 야생성을 분출시킨다는 점에서 아르 브뤼의 연장선에 있다. 작가가 통화를 하다 볼펜으로 끄적거린 낙서에서 시작된 이 양식은 중심이 되는 이미지 없이 무한으로 복제되고 확산된다. 두꺼운 검은 윤곽선 안에 흰색, 푸른색, 붉은색이 채워진 비정형의 이미지는 일상의 풍경이나 사물, 인물을 표현하고 있으나 관습적인 이해를 전복시키고 제도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은유한다.



<지휘하는 소녀 Baton Girl>, 2014, Digital C print, 245.1 x 180.3 cm

빅 무니즈(브라질, 1961~)

Vik Muniz

빅 무니즈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뉴욕에 거주하며 활동한다. 무니즈는 미술사나 대중문화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이미지를 먼지, 철사, 폐기물, 캐비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비전통적인 재료로 재현한 뒤 이를 촬영한다. 그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전유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적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현의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휘하는 소녀>는 <앨범(Album)> 연작의 일환으로 작가가 20여 년 동안 수집한 수천 장의 사진을 마치 지휘봉을 든 소녀의 모습처럼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콜라주한 것이다. <앨범> 연작에서 작가는 각자의 사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진들을 한데 모아서, 가족 앨범에서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보편적 서사를 담은 작업은 친숙한 현실이 지닌 신비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삶의 파편들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신 Metamorfosi>, 1982, Acrylic on canvas, 194 x 263 cm

발레리오 아다미(이탈리아, 1935~)

Valerio Adami

발레리오 아다미는 이탈리아 출생의 작가로 친구상주의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이다. 아다미는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유의 작업 방식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다. 작가 화풍의 가장 큰 특징인 검은색 윤곽선과 대담하고 평면적인 색채는 생동감을 전해주지만, 아다미의 회화 근저에는 미묘한 우울감과 쓸쓸함이 자리한 듯 보인다. 화면 속 인물들은 인체가 절단, 변형된 채 광활한 풍경 속에 홀로 있거나 서로 등을 돌린 포즈를 취하는데, 이는 현대 문명의 폭력 아래 소외되는 현대인의 실존을 비유한다. 작가는 현대 도시인을 읊아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과 정체성의 균열에 대한 고발을 작품에 담아 현대 사회의 이상적 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것의 끝 End of the End>, 2008, Print
on plastic material, propylene glycol, distilled
water, 200 x 152.5 x 66 cm

이기봉(한국, 1957~)

Kibong Rhee

이기봉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로 인간의 심리 너머의 의미와 구조를 감각적이고도 몽환적으로 형상화한다. 그의 작업에는 수증기, 안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물이 등장한다. 작가는 물이 사물에 굴절이나 왜곡을 발생시킴으로서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데, 이는 사물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끝>은 물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가시영역에서 벗어나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물의 순환을 가시화하는 장치이자 대류에 따라 계속해서 운동하게끔 설계된 책은 노자, 도스토옙스키, 들뢰즈, 니체의 글을 엮은 것으로 재현할 수 없는 인간 사고와 의식에 대한 또 다른 은유이다.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을 가시화하는 부유하는 책은 의식과 감각의 차원을 유명하며 세계를 새롭게 감각하게 한다.